

서울시민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 이슈*

Quality of Life and Policy Implications in Seoul

변미리**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기준이 경제적 지표에서 확장되어(Beyond GDP, GDP Plus Beyond) ‘행복’이 주요 측정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행복을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행복 약자를 발굴하고 행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은 서울시의 삶의 질 현황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서울형 행복지표체계를 소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 행복실태조사를 근거로 시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행복격차’를 파악하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정책 입안의 근거를 밝힌다.

핵심주제어: 삶의 질, 서울형행복지표체계, 서울시민행복실태조사, 행복격차, 2050 서울행복플랜

I. 서론

공공정책이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책지향이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발간은 공공부문에서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회 발전수준 = 국민총생산(GDP)으로 측정하던 일반적 기준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 이 보고서의 출현으로 전 세계의 성장은, 한 국가의 성장은, 한 도시의 성장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며, 사람을 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국제기구, 국가, 협력체, 도시 등 다각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UN, OECD와 같은 국제기구 단위에서는 GDP와 같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와 더

* 이 글은 2022년 11월 23일(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 센터장, 선임연구위원, E-mail: miree21@si.re.kr

불어 국가별 비교, 행복 정책 사례 공유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가 단위에서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지표를 마련하고 측정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웰빙 경제정부(WEGo: Wellbeing Economy Governments)와 같은 협력체에서는 측정된 행복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행복 예산 등의 정책을 통해 실제적인 행복 정책 시행을 촉진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시민 행복을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행복 약자를 발굴하고 행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2019년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0년 조례 시행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행복정책부서를 신설하고, 서울시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여 행복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글에서는 시민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서울시의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리뷰하고, 시민행복실태조사에 근거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현황을 분석하고, 행복격차의 현재를 파악하였다. 또한 행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의 현재를 밝히고자 한다.

II.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노력들

1. 서울시민을 행복증진을 위한 제도적 노력

1)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증진 조례 제정

서울시는 행복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2019년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이하 행복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0년 조례 시행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행복정책부서를 신설하고, 서울시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여 행복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시민 행복을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행복 약자를 발굴하고 행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결과이다.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는 ‘행복 격차’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지역단위나 생활권역에서 나타난 행복의 수준 차이’로 정의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 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 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의 전반적인 행복측정과 행복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행복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민 행복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행복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서울시민행복기본계획(2024 서울행복플랜)의 구성과 서울행복지표체계



2)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

서울시는 2020년 서울행복지표(SHI: Seoul Happiness Indicator)를 구축하여 시민행복 측정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서울형 행복지표는 주관적일 수 있는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10개 영역 61개 지표로 지표 정의와 산출 방법에 따라 행정자료 조사와 온라인 시민행복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가 구축된다. 서울행복지표를 구성하는 10개의 영역과 영역별 세부영역, 각 세부영역의 지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서울행복지표의 구성

	영역	중영역	지표	자료 유형	
				행정자료	행복실태조사
행복한 도시 (22)	1. 주거 안정성 (3)	주택	1.1.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	
			1.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율	●	
		주거환경	1.3. 비정상적 거처 거주가구 비율	●	●
	2. 환경 (8)	생활환경	2.1. 1인당 공원면적	●	
			2.2. 생활환경 만족도		●
			2.3. 10분 동네 생활편의시설 수	●	●
			2.4. 기후변화 불안도		●
			2.5. 미세먼지·황사 없는 날 수	●	
			2.6. 온실가스 배출량	●	
		안전환경	2.7. 생활안전도		●
			2.8. 야간보행 안전도		●

	영역	중영역	지표	자료 유형	
				행정자료	행복실태 조사
행복한 도시 (22)	3. 교통 (6)	교통환경	3.1. 지하철 혼잡도	●	
			3.2. 교통체증 체감률		●
			3.3. 대중교통이용만족도		●
			3.4. 자전거 도로율	●	
		보행환경	3.5. 보행환경 만족도		●
			3.6. 통근·통학시간		●
	4. 교육 (5)	교육환경	4.1. 국공립 어린이집 수	●	
			4.2. 세대 간 교육 이동성		●
			4.3. 교육환경 만족도		●
		교육기회	4.4. 평생학습 참여율		●
			4.5. 교육기회충족도		●
행복한 시민 (26)	5. 경제 생활 (6)	소득과 소비	5.1. 1인당 개인소득	●	
			5.2. 소득만족도		●
			5.3.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	
			5.4. 소비생활만족도		●
		자산과 부채	5.5. 총자산액	●	
			5.6. 부채율		●
	6. 일과 생활 균형 (6)	일과 근로 조건	6.1. 고용률	●	
			6.2. 고용의 질	●	
			6.3. 유연근무 도입률	●	
		젠더와 생활	6.4. 가사·돌봄 분담률(아동노인 돌봄 포함)		●
			6.5.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
			6.6.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		●
	7. 건강 (8)	신체건강	7.1. 건강검진율	●	
			7.2. 걷기실천율		●
			7.3. 건강 삶의 질 지수	●	
			7.4. 주관적 건강만족도		●
		정신건강	7.5. 자살률	●	
			7.6. 스트레스 인지율		●
			7.7. 고독사수	●	
			7.8. 외로움		●
	8. 문화 여가 (6)	문화공간	8.1. 도서관 수	●	
			8.2. 생활문화공간 수	●	
		문화참여	8.3. 문화활동참여횟수		●
			8.4. 문화환경만족도		●
		여가활동	8.5. 연간 여행횟수		●
			8.6. 여가시간 충분성		●

	영역	중영역	지표	자료 유형	
				행정자료	행복실태 조사
함께 행복한 사회 (13)	9. 사회 통합 (9)	시민성	9.1. 공적 의사결정 참여경험		●
			9.2. 지역자부심		●
			9.3. 투표율	●	
			9.4. 자원봉사 참여율		●
			9.5. 기부율		●
		연대	9.6. 사회적 지지		●
			9.7. 이웃신뢰		●
		공정과 포용	9.8. 공정성 인식도		●
			9.9. 포용성 인식도		●
	10. 주관적 안녕감 (4)	삶의 만족	10.1. 삶의 만족도		●
			10.2. 삶의 선택의 자율성		●
		정서 경험	10.3. 긍정적 감정(긍정정서)		●
			10.4. 부정적 감정(부정정서)		●

2. 서울시민 행복실태조사

시민행복 실태조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태도’, ‘인식’, ‘가치’의 현재와 변화를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세대, 성별, 계층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해 증거기반의 정책입안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조사이다. 시민행복 실태조사는 서울행복지표(SHI)에 근거해 온라인 시민조사, 집단심층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행정자료 조사로 설계되어 시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시민조사의 결과를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온라인 서울시민조사의 개요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서울시민 온라인 조사 개요

서울시민 조사	• 조사대상: 서울거주 만 19세 이상 시민 • 표본크기: 6,700명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1.2\%$point
------------	---

서울시민행복실태조사의 조사문항은 행복한 시민차원, 행복한 도시차원, 함께 행복한 사회라는 3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시민행복 실태조사 내용

표본선정	행복한 시민	행복한 도시	함께 행복한 사회
• 성별 • 거주지역(구) • 출생년도	• 주관적 건강 만족도 • 스트레스 인지율 • 반려동물 •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 지역사회 정서적 친밀감 정도 • 연간 여행 횟수 •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 평생학습 참여율 • 걷기 실천율 • 외로움 • 가사·돌봄 부담률 • 하루에 접촉하는 사람 수 • 문화활동 참여횟수 • 여가시간 충분성 • 교육기회 충족도	• 기후변화 불안도 • 보행환경 만족도 • 통근·통학시간 • 생활안전도 • 대중교통이용만족도 • 교통체증 체감률 • 대중교통 혼잡도	• 자원봉사 참여율 • 공적의사결정 참여경험 • 사회적지지 • 이웃과의 갈등정도 • 차별경험 여부 및 종류 • 시민성 • 생활환경 만족도 • 긍정/부정적 감정 • 코로나19-감염/우울/소득변화/동네 안전 인식 • 기부율 • 지역자부심 • 이웃신뢰 • 공정성 인식도 • 포용성 인식도 • 삶의 만족도 • 교육환경 만족도 • 문화환경 만족도 • 삶의 선택 자율성 • 노후 불안감 • 나의 세대 대비 다른 세대 행복
인구학적 특성 • 혼인·고용 • 종교 • 가구소득 • 소득만족도 • 소비만족도 • 부채율 • 직업 • 실직 불안감 • 학력 • 교육 이동성 • 가구원 수 • 교통약자 • 경제상황 안정도 • 주택유형 • 점유형태 • 이념성향			

III. 서울시민의 삶의 질 현황과 행복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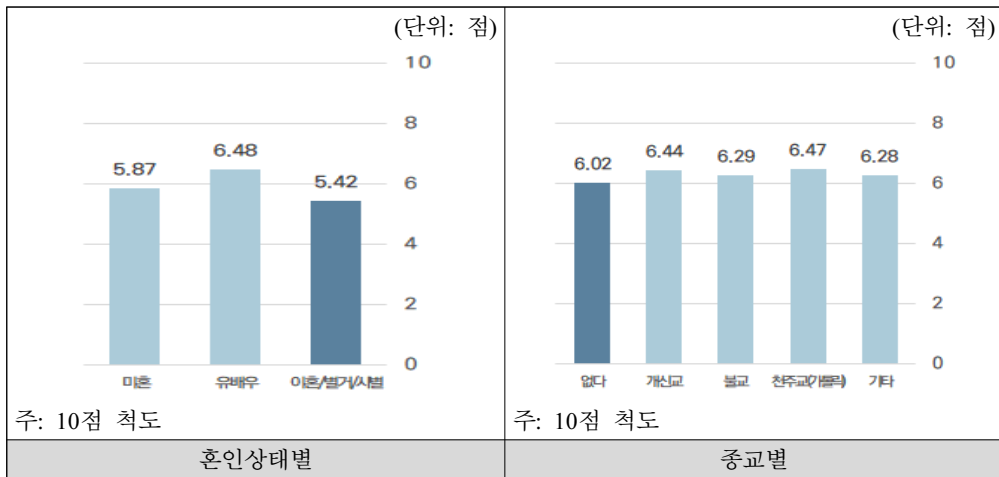
1. 서울시민 삶의 질 현황

1) 서울시민 행복도와 인구사회특성별 행복 현황

시민행복 실태조사에 근거한 서울시민의 현재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0~10점) 평균은 6.18점으로 나타났다(11점 척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1인 가구, 이혼/별거/사별, 종교가 없는 경우 현재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낮았으며, 고소득자의 행복도가 저소득 계층에 비해 높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그림 4> 서울시민의 행복도 현황





서울시는 2021년에 시행한 행복실태조사 이외에도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를 통해 매년 행복지수를 발표하고 있다.¹⁾ 서울서베이에서 발표하는 서울시민 행복지수는 서울시민의 주관적인 행복정도로, 건강상태·재정상태·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만족 정도를 총합하여 산출된다. 연도별 행복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6.35점부터 2016년 6.97점까지 꾸준히 증가한 이후 2017년부터 감소하여 2019년 6.84점에서 2020년 6.54점으로 0.3점 감소하였다. 2020년 항목별 행복지수도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생활’,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사회생활’, ‘자신의 재정상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에서 서울시민의 행복현황은 6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울시민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우리는 서울시민행복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기존 논의들을 참조하여 서울시민 행복영향 요인파악을 위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1) 서울특별시(2021), 서울서베이는 2003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대규모 시민조사로 20,000가구 15세이상 전수조사(개략적으로 4만5천여명 내외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한다. 20년 이상을 유지한 도시사회정책지표조사인 서울서베이는 매년 10개 분야, 100개 지표를 근거로 행정자료 조사, 가구, 가구원조사, 시민조사, 외국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한다.

<표 2>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 활용한 변수 정의

변수명		변수 정의	척도	
주관적 삶의 만족도		현재 삶의 만족도	11점 척도	0=만족 안함, 10=매우 만족 (0점~10점)
긍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즐거움, 행복한, 편안한)	11점 척도 (긍정적 감정 3개 항목의 평균)	0=전혀 안 느낌, 10=매우 느낌 (0점~10점)
부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짜증, 부정적, 무기력한)	11점 척도 (부정적 감정 3개 항목의 평균)	0=전혀 안 느낌, 10=매우 느낌 (0점~10점)
경제요소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연속변수(1~9)	100미만~천만원 이상 범주
인구 사회학적 요인	연령	연령(만)	연속변수	만 나이 = 2021-출생연 도
	성별 (남성=1)	남성 여성	더미변수	남성=1, 여성=0
사회적 지원망	신체적 지원망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있음	더미변수	1=있음, 0=없음
	금전적 지원망	급할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있음		
	정서적 지원망	낙심/우울할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있음		
건강 요인	주관적 건강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5점 척도	1=매우 나쁨 (⑤) 2=나쁜편(④) 3=보통(③) 4=좋은편(②) 5=매우 좋음(①)
기타 사회 자본 요인	삶의 선택 자율성	자기 삶의 선택의 자율성 인식도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포용성	사회적 약자 포용성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	4점 척도 (6개 항목에 대한 평균)	1=매우 불편하다 2=다소불편하다 3=별로 불편하지 않다 4=전혀 불편하지 않다
시민성	자원봉사 참여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함	더미변수	1=있음, 0=없음
	기부 경험	지난 1년간 기부 경험 있음	더미변수	1=있음, 0=없음
	공적 의사결정 참여	공적 의사결정 참여함 (1개 이상 참여함)	더미변수	1=참여함, 0=참여하지 않음
	지역 자부심	서울시민 자부심	11점 척도	0=전혀 안 느낌, 10=매우 느낌 (0점~10점)

분석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서울시민 전체의 행복도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지역자부심, 소득, 주관적 건강만족도 등임을 파악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소득변수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주관적 건강만족도나 지역자부심 변수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 서울시민 행복도의 영향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표준화 계수
	베타
월 평균 가구소득	.100**
연령(만)	-.011
성별(남성=1)	.027**
신체적 지원망	.018*
금전적 지원망	.041**
정서적 지원망	.033**
주관적 건강만족도	.112**
삶의 선택 자율성	.050**
포용성	-.001
자원봉사 참여	.000
기부 경험	.010
공적의사결정 참여	.065**
지역자부심	.193**
긍정적 감정	.461**
부정적 감정	-.108**

*p<0.1, **p<0.001

2. 서울시민 행복격차

1) 지역별 행복현황

서울시 자치구별 삶의 만족도로서 행복도가 높은 기초단체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종로구, 성북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등이었다. 이들 지역의 공간적 특성은 시민들이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이웃을 신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공동체간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흥미로운 점은 서울시민 전체가구의 가구소득과 현재 삶의 만족도로서 행복점수는 서로 조응하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 비슷한 소득수준(평균가구소득)인 경우에도 자치구별 행복도에서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표 4> 자치구별 삶의 만족도 및 집단별 특성 분석

	긍정도 문항							
	삶의 만족도	생활 환경 만족도 (종합)	주거 지역 안전성 (종합)	주거 지역 보행 환경 만족도	코로나 19 이후 동네 안전도	대중 교통 만족도	이웃 신뢰	지역 공동체 친밀감 (종합)
전체	6.18	5.24	4.51	6.09	4.38	6.67	4.10	4.32
강남구	6.53	5.60	4.65	6.48	4.37	6.65	4.54	4.55
송파구	6.51	5.53	4.65	6.49	4.48	6.77	4.18	4.42
서초구	6.50	5.43	4.43	6.10	4.49	6.48	4.22	4.47
종로구	6.42	5.26	4.84	5.65	4.93	6.58	4.61	4.97
성북구	6.40	5.29	4.64	6.05	4.50	6.86	4.33	4.39
중구	6.40	5.29	4.65	6.37	4.15	6.78	4.12	4.43
용산구	6.37	5.33	4.42	5.91	4.69	6.73	4.06	4.61
마포구	6.33	5.36	4.55	6.19	4.43	6.71	4.00	4.29

<그림 5> 자치구의 행복도와 지역 평균 소득 간의 관계성



2) 지역별 행복현황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소들

우리는 비슷한 소득수준인 경우에도 지역별로 행복도에서 차이가 나는 점에 관심을 두고서 몇 가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역을 저소득-저행복지역, 고소득-고행복지역, 저소득-고행복 지역으로 구분한 다음, 각 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이 가진 긍정적 감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저소득-고행복 지역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에서 지역자부심 변수와 주관적 건강만족도 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설명정도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흥미로운 결과이다(<표 5> 참조).

<표 5> 지역별 행복도 결정요인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구분	저소득-저행복 지역 (주관적행복도)	고소득-고행복 지역 (주관적행복도)	저소득-고행복 지역 (주관적행복도)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월 평균 가구소득	.081***	.111***	.042
연령(만)	-.013	-.019	-.006
성별(남성=1)	.007	.015	.033
신체적 지원망	.032	.009	-.018
금전적 지원망	.032	.071***	.038
정서적 지원망	.032	.007	.084**
주관적 건강만족도	.139***	.117***	.148***
삶의 선택 자율성	.038*	.080***	.053
포용성	-.026	.004	.012
자원봉사 참여	-.001	-.021	.031
기부 경험	.001	.009	.026
공적 의사결정 참여	.056**	.061**	.066*
지역자부심	.193***	.180***	.265***
긍정적 감정	.488***	.502***	.393***
부정적 감정	-.133***	-.082***	-.089***
R 제곱	.565	.575	.513
F	111.773	114.679	33.108

*p<0.1, **p<0.05, ***p<0.001

IV.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을 살펴 보았다. 행복정책입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러한 제도에 근거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서울행복지표를 구축하고, 행복기본계획에 근거해 서울시민행복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서울시민의 행복도 현황을 파악하였다. 행복실태조사 데이터에 근거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행복격차가 나타난다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 지를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 중이다. 서울시의 행복정책은 서울시민행복기본계획인 서울행복플랜을 통해 구현 중이다.

서울시의 행복기본계획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행복수도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격차 완화를 통한 시민 행복도 증진’을 목표로 격차와 차별완화를 위한 방안 조성, 시민참여형 행복 시정 구축, 행복협력 네트워크 구축, 행복시정 추진의 제도 기반 구축을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십여개의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서울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이미 저성장 단계로 들어섰다.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서울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성숙사회로의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은 경제적 요소 이외에도 지역 자부심, 어떤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 등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가 경제적인 요소를 넘어서 비경제적 요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도시발전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참고문헌

- 변미리 · 박민진 · 박영미(2020),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서울연구원.
- 서울시복지재단(2021), “2021년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 포럼 제1차 ‘서울, 사회적 고립의 위험과 대응’(2021.4.28.) 자료집”.
- 서울특별시조례,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960호)”.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s://data.seoul.go.kr/index.do>
- Helliwell, John F., Richard Layard, Jeffrey Sachs & Jan-Emmanuel De Neve, eds.(2020), *World Happiness Report 2020*,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Retrieved from <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0/>
- Our World in Data(2013),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Retrieved from <https://ourworldindata.org/happiness-and-life-satisfaction>